

### 건학 100년 동국대 이대론 안된다

# 재정 기여 없이 ‘갈등’만 ... 각계 화합 주문

1. 어찌다 여기까지 왔다
2. 불교대학 ‘개혁’만이 살길이다
3. 재단에 대학발전 기대할 수 있나?
4. 100년 동국대 비전은 어디에?

■이사장 자리 놓고 대립 ... 이사회 파행  
최근 언론과 교계 단체들은 동국대가 온갖 비리와 의혹의 온상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재단’이 자리잡고 있다. 동국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재단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2월 정대 스님의 입적으로 공석이 된 이사장 자리를 놓고 지관 스님을 추대하려는 성오 종상 장운 스님, 류주형 이사사와 현해 스님을 추대하려는 현성 영배 영담 스님, 홍기삼 황창규 이사 등이 격돌한 후 이사회는 1년이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학교발전에 기여해야 할 이사들이 재단운영의 주도권 싸움으로 침체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사회는 갈등으로 100주년을 코앞에 둔 동국대는 구성원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날을 지새고 있다.

■재단 관련 의혹 ‘검찰 수사’  
동국대 재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관 성오 종상 장운 스님, 류주형 이사 등 5인과 일련범여 스님, 박도근 감사 3인이 연명으로 총장과 이사회를 작년 8월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대 필동병원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승인 이전에 총장이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고, 중앙대 측이 최초 제안한 260억원이 아닌 273억원에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100억원이라는 과다한 계약금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과 관련, 검찰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의혹과 관련해 납득할만한 해명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사장 측이나, 의혹 제기로 일관하는 1년 넘게 파행시키고 있는 반대측 모두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비난이 비등하다.

사범대 모 교수는 “이사들마다 입으로는 자신들이 학교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학교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면서 “학교를 위한 공심보다는 사사로운 이해관계에만 열중하는 이사들

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라며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동국대 재단과 관련한 의혹들은 중앙대 필동병원 매입 건 외에도 △부속병원 의약품 납품관련 잡음 △총장 출국금지 △부속 한방병원 매각 △GS건설(옛 LG)에 의한 병원 압류조치 등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국대 힘 빼는 ‘중선(宗選)이사’  
이런 상황에서 재단에 대학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동국대 구성원들 대부분은 “NO”라고 짚라 말한다. 재단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이미 재단의 ‘해해론’ ‘무용론’

## ‘혁신’ 각오로 건학이념 살리기 나서야 중단 정치적 이해와 깊은 연결... ‘불화’ 원인 “유력인사 참여 등 건전성 담보가 실마리”

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첫째 기형적인 재단이사회 구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동국대 이사회는 종단 파송 9인(스님과 재가 4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이사 13명 가운데 동창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실상 관선이사나 다름없는 ‘중선(宗選)’ 이사들이다. 정치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태)가 추천하는 이사들의 면면은 중앙종회 정치 구도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다. 두 차체에 걸쳐 파견된 정부의 관선이사 만큼이나, 종단의 ‘중선이사’가 동국대를 무기력화

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사학재단의 기본적인 역할이 재정적 기여라고 봤을 때 동국대 재단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지난해 동국대 재단 전입금은 약 6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학교와 연결 회계로 잡히는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실제 동국대 재단이 학교에 지원하는 전입금은 겨우 몇 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타 대학의 경우 2003년 회계 기준으로 연세대가 약 1000억원, 고려대가 320억원, 성균관대가 620억원의 전입금을 지원한 것에 비하면 동국대 재단의 전입금 규모는 턱없이 낮다. 재정적 기여가 거의

없으면서도 동국대를 비롯한 9개 산하학교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동국대 이사회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입금 출연이나 재정적 기여에 따라 이사 선임자격을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셋째 이사들의 자질 문제도 심각하다. 전문성의 검증 보다는 문종 등 종단 내직 이해관계에 의해 이사회가 선임되기 때문이다. 재단의 모 이사스님은 “이사들 중에 이사로서 자신의 소임을 책임감을 못 느끼는 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서 4월 26일 열린 제209차 동국대 이사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다분다”며 일부 이사들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또 “제가 이사들도 선임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는 한 스님이사들의 ‘들러리’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한때 재단 사무처장을 맡았던 모 인사는 “건학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가 아닌, 종단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 속에서 학교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사 선임 과정·활동내용 투명해야  
재단이 제 역할을 하기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불교대학 박사과정의 한 스님은 “만약의 경우 종립대학 동국대를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제2견학 수준의 재단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자신의 본래 역할인 전입금과 재정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총장 이하 대학당국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종단정치체로 변질된 재단 이사회가 건학이념 구현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선출과 구성과정 등에 얽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골자는 사학재단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있다. 이에 따라 학교의 공공성에 걸맞은 사회적 지명도와 도덕성을 겸비한 유력인사의 이사회 참여를 통해 재단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수회 부회장 홍승기 교수는 “재단의 이사 선임과정과 활동내용들이 투명해져야 이사회를 둘러싼 온갖 의혹들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십 년 동안 지속돼온 종단과 재단 간의 갈등도 종식시켜야 한다. 조계종은 동국대의 실질적 주인이면서도 70년대 이후 하나뿐인 종립대학을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대학의 수장인 총장이 소신을 가지고 학교경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사회가 사소한 보직교수들의 인사까지 모두 간여하면서 총장의 경영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대학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엇보다 동국대 구성원들과 1000만 분자들은 이사회가 학교발전을 위해 화합하는 모습과 빠른 꺾는 자정노력을 보여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강지연·조용수·박익순 기자

### 인터뷰

동국대 상임이사 영배 스님

### “중단과 재단 협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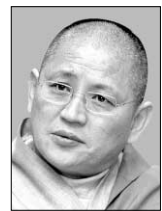
새로 신설된 재단에 의해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영배 스님은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의혹의 책임이 일부 이사스님들의 ‘정치적 의도’ 탓”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학교가 정체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재단 이사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10~20년 동안 재단의 경영 실패가 누적되어온 결과”라며 “당장 모든 것이 개선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스님은 동국대 위기 극복을 위해 총무원장이 재단운영에 참여하면서 종단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금이라도 종단과 재단이 긴장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종단과 재단의 화합을 강조했다.

동국대 이사 장운 스님

### “독선적 운영 끝내야”



법인 사무처장을 2년간(2002~2003년) 역임한 바 있는 장운 스님은 현재 동국대 재단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이사들을 향해 “이사회 내 수석 위위를 앞세운 독선적 재단운영이 극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스님은 동국대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재단이 종단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불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며 “종단의 힘을 빌려 학교발전의 동력을 삼아야 하는데 오히려 종단과 반목만 일삼고 있는데 있다”고 말했다.

또 홍기삼 총장의 대학경영도 문제 삼았다. 스님은 “홍 총장이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대학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학교가 안정이 되어 발전기금도 들어오고 동문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 중단의 진정한 자정과 참회를 촉구한다

모든 생명들이 경축해야 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언론, 방송에 연이어 오르내리고 있어 종단 안팎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초의 해명을 이어 시대의 사표로 살아가야 할 스님들이 세간의 입속에 오르내리고, 한국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 교구본사, 교육기관까지 비리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은 담은 기사가 보도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의 사표이자 바람직한 수행자를 길러내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중앙승가대학교의 동문들은 이에 대해 강한 책임의식을 통감하고, 국민과 종도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며, 과욕과 인일에서 비롯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용맹정진 할 것입니다.

다행히 본사주지스님 회의 등 뜻있는 스님들과 중안신도회 등 교계 재가단체에서 중단의 자정과 참회를 촉구하고 청정 종단을 구현하기 위해 보살행의 가치를 내건 것은 교단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우리 1,200여 중앙승가대학교 동문들도 이 길에 동참하는 바입니다.

진정한 자정은 자신의 허물을 들어내고 참회를 통하여 용서를 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안의 본질과 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밝혀내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와 종도들에게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고, 사안의 본질을 덮기 위해 다른 사안을 이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안들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보여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부정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불교중앙박물관의 경우 실무적 업무처리만을 담당하는 재가 총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더불어 근거 없는 음해성 폭로를 통해 승가에 상처를 주는 일은 더욱더욱 없어야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과 종도들에게 다시 한 번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청정 종단 구현을 위한 뜻있는 스님과 재가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언론에 제기된 개인과 문제 사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 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밝혀내어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단은 사전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찰 불사와 운영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수행과 포교에 전력을 다하는 청정 종단 구현을 위해 법과 제도 개혁 등 자정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과 종도들에게 무너지고 있는 종단에 대한 신뢰의 싹을 다시 틔울 수 있는 길입니다.

동국대학교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도 밝혀져야 합니다. 현재 동국대학교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9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동국대학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넘쳐 백년 사학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으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등 종단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종립 동국대학교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종결하여 조사결과를 명명백백 밝혀 처리하고, 동국대학교가 종립학교로서 설립취지와 이념의 실현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국대학교 이사회도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조사가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의 부정비리 의혹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에 의해 조사되고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총무원은 불교중앙박물관 공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관계자 문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총무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총무원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만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총무원 관계자 또한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의 조사를 통해 이 사안의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자정과 참회의 첫 걸음이자 국민과 종도들에게 청정승가 구현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단을 바라보는 내외의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이러한 패일수록 국민과 종도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맑고 투명한 종단 구현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정과 발로참회를 통해서 그 책임소재와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찰에서부터 중앙종단까지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사부대중의 공동체가 형성될 때 청정 종단의 구현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1,200여 중앙승가대학교 동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단 내부는 물론 사회전반을 투명하고 맑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자정과 참회의 길에 사부대중과 함께할 것입니다.

불기 2549(2005)년 5월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동문 일동